

부진·부활, 한 자 차이... 결과는 하늘땅 차이

박태환 수영 자유형 200m도 예선 탈락

세계1위 조코비치, 테니스 1회전 탈락

돌아온 '황제' 펠프스, 계영 400m 우승...통산 19번째 금



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미터에 출전한 박태환이 경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가 8일 올림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테니스 단식 1라운드에서 후안 마르틴 델포트로(아르헨티나)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펠프스가 8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계영 400m에서 미국 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3분09초9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일켰다. /연합뉴스

“레이스 뜻대로 안돼 답답... 죄송하다”

자유형 200m에서도 예선에서 탈락한 박태환(27)은 전날 자유형 400m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을 때보다 더 마음이 복잡한 모습이었다.

박태환은 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자유형 200m 예선 6조에서 1분48초06으로 8명 중 최하위, 전체 47명의 참가선수 중 29위에 처져 탈락했다. 전날 자유형 400m에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이 좌절된 데 이어 이날은 16명이 올라가는 준결승 무대도 밟지 못하게 됐다.

자유형 200m는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2회 연속 은메달을 차지한 종목이다. 경기 후 박태환은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한국 취재진을 보자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기대를 채워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어제 400m 경기의 아쉬운 부분을 오늘 꼭 만회하려 하다가 오버했다”며 “어깨가 많이 무거웠다. 스피드해야 하는데 어깨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레이스가 뜻대로 안 돼 나 자신도 답답했다”면서 “터치패드를 찍고 나서 기록을 보기가 두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박태환은 도핑 규정 위반으로 18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막혀 제대로 훈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박태환은 “잘 훈련해왔고 리우로 오기 전 미국에서 2주 동안도 나 자신을 뛰어넘으며 심적 안정을 취하고 잘했다”면서도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2년여의 공백으로 세계 수영계에서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큰 무대를 약 2년 만에 치르다 보니 그동안의 레이스나 신에 선수들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내가 뛰었던 시대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예전과 달리 예선부터도 치고 나간다. 2012년, 2013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이를 깨닫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부담감이나 여러 복합적 부분 때문에 급하게 쫓아가려다 보니 레이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많이 답답하다”는 말을 수차례한 그는 “올림픽에서의 이런 내 모습에 적응이 안 된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본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4년 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딴 뒤 울먹이다가 인터뷰를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 당시 대회 2연패를 노렸던 박태환은 예선에서 실격 파동을 겪으며 혼란에 빠졌고, 그럼에도 결승에서 역경을 펼쳐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지만 여러 감정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그때보다 마음이 더 무겁다”면서 “미묘하고 많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와 1,500m를 남겨뒀다. 남은 두 종목을 모두 뛸 것인지 대해서는 “코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일단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몫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기가 수영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취재구역에 떠났다. /연합뉴스

4년전 졌던 선수에 또...올림픽 불운 지속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둘째 날, 세계최강 선수가 패배하는 깜짝 놀랄 일이 잇따랐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로 ‘무결점’ 선수로 불리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8일(한국시간) 올림픽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테니스 단식 1라운드에서 후안 마르틴 델포트로(아르헨티나)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했다.

3번째 출전한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한 조코비치는 커리어그랜드슬램을 4년 뒤로 미뤘다.

조코비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4위에 그쳤다.

이날 조코비치에게 패배를 안긴 상대는 4년 전 런던올림픽 동메달결정전에서 조코비치에게서 동메달을 빼앗아간 인물이다. 델 포르투는 2009년 US오픈 우승자이긴 하지만 손목에 3차례나 수술을 거치면서 세계 랭킹 145위에 처져 있었다. 8일에는 엘리 베이타에 간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여자 테니스에서는 비너스 윌리엄스(36), 세리나 윌리엄스(35)가 짝을 이룬 테니스 ‘최강자매’가 1차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올림픽 무대에서 이 자매의 복식조가 패배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매는 이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3번의 올림픽에서 15연승을 거뒀다. 2000년 시드니,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에서 그 덕분에 당연히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언니 비너스는 전날 단식에서도 탈락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복통 등으로 고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세리나는 다행히도 2회전(32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100m 기록 32명 중 네번째

네 차례 올림픽 금메달 획득

통산 22개 메달 ‘사상 최다’

2016 리우올림픽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	
최다 금메달리스트	마이클 펠프스(미국) 19개 수령(2004~2016년 8월 8일 현재)
	라리사 라티니나(구 소련) 9개 제조(1956~1964)
	파보 누르미(핀란드) 9개 육상(1920~1928)
	마크 스피츠(미국) 9개 수영(1968~1972)
	칼 루이스(미국) 9개 육상(1984~1996)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31)가 개인 통산 19번째 금메달과 함께 자신의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펠프스는 8일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계영 400m에서 미국 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해 3분09초9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일켰다.

이로써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인 펠프스는 통산 19번째 금메달이자 23번째 메달(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포함)을 목에 걸었다.

펠프스는 이날 오전 열린 예선 경기에는 뛰지 않았지만 결승 멤버에는 포함돼 리우 대회를 단체전인 계영 400m로 시작하게 됐다. 계영 400m는 한 팀에서 4명이 출전해 100m씩 나눠서 자유형으로 차례로 헤엄쳐 기록을 다투는 종목이다.

펠프스는 서른을 넘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녹록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다. 100m 기록만 놓고 보면 47초12로 미국 대표팀 내에서 애드리언(46초97)에 이어 두 번째, 전체 8개 조 32명 선수 중 네 번째로 빨랐다.

펠프스는 이날 우승으로 네 차례 올림

픽에서 각각 금메달 하나 이상을 딴 첫 번째 수영선수가 됐다. 계영 400m에서는 네 번째 올림픽 메달(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을 따 미국 대표팀 동료였던 제이슨 레자와 역대 최다기록 타이틀을 이뤘다.

펠프스는 15세이던 2000년 시드니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이번 리우 대회까지 5회 연속 올림픽 물살을 가른다.

첫 올림픽에서는 빈손이었지만 이후 2012년 런던 대회까지 통산 22개의 메달을 수확해 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 메달 기록을 새로 썼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출전한 8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수확해 1972년 뮌헨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딴 마크 스피츠의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도 경신했다.

런던올림픽이 끝나고 은퇴한 펠프스는 2014년 4월 현역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그해 9월 읍주·과속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10월 초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자격 정지를 당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수영 황제는 리우에서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펠프스는 이날 우승으로 네 차례 올림

대통령 꿈꾸던 소녀 “여자유도 응원해주세요”



정보경 선수의 어릴 적 모습.

‘유례발랄’ 유도 銀 정보경

장래희망 난에 ‘대통령’을 적어 넣었던 소녀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대통령 축전을 받았다.

지난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한국선수단 지원 시설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보경(25·안산시청)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게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유쾌하게 웃었다.

정보경은 대회 첫날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따낸 첫 메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정보경을 축하했다.

정보경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비슷한 장래희망을 품길래 ‘나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며 “은메달이 (대통령이

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냐”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성인이 되면서 꿈도 바뀌었다.

정보경은 “실업팀에 입단하고 ‘직업인’이 되면서 꿈이 조금 바뀌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라고 말했다.

정보경의 솔직하고 엉뚱한 말에 기자회견장에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하루 사이 정보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정보경은 전날 결승전에서 어렵게 패한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림픽을 준비하던 지난 4년이 떠올라서 울었다.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다”며 “생각해보면 (은메달을 딴) 기쁜 날이고, 혹시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울어버렸다. 지금은 괜찮다”고 했다.

그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올림픽은 단 한 번만 나오

고, 금메달을 따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라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나오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위의 격려도 힘이 됐다.

정보경은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었다는 축하 인사가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물론 아쉬움은 남는다.

그는 “아무래도 남자 유도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내 경기가 끝나면 모든 카메라가 나를 향해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준비했고, 함께 훈련한 우리 여자 유도 선수들에게 ‘내가 먼저 나가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다”고 아쉬워했다.

정보경의 은메달은 한국 여자 유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도 정보경은 “관심”을 부탁했다.

정보경은 “관심”을 부탁했다.

정보경은 “관심”을 부탁했다.

정보경은 “관심”을 부탁했다.

정보경은 “관심”을 부탁했다. /연합뉴스